- 1. 미래 모빌리티 정의
 - A. 내연기관 -> 자율주행, 전동화, 커넥티비티, 공유 경제 전환하는 모빌리티 <mark>산업</mark>의 변화

2. 핵심 트렌드 4가지

A. 전동화

- i. 정의: EV, PHEV(플러그인 하이브리드), FCEV(수소연료전지차) 등으로의 전환 (수소도 포함)
- ii. 핵심 이유: 탄소 배출 규제,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 증가
- iii. 직무 관련 질문:
 - 1.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주요 차이? EV: 배터리 주요 동력원, 전기 모터, 탄소 배출 X, 유지보수 비용 낮음 내연기관: 연료 연소, 엔진, 배출가스, 높은 유지비용
 - 2. 전기차 SW 역할?BMS, 전력 분배 최적화, 열 관리, 충전 제어로 효율성 안전성 향상 OTA를 통해 기능 개선 가능
 - 3. BMS(배터리 관리 시스템)의 중요성?

B. 자율주행

- i. 정의: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 기술
- ii. 핵심 기술: <mark>센서</mark>(LiDAR, 카메라),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, <mark>경로 계획</mark> 알고리즘
- iii. 직무 관련 질문
 - 1. Level 0~5 설명?

Lv 0: 운전자 전담

Lv 1: 특정 기능 차량 보조

(ex: 크루즈 컨트롤(속도만 유지하여 피로방지))

Lv 2: 차량이 조향과 가속/감속 동시 보조 (ECU, 오버스티어 방지)

Lv 3: 특정 상황 차량이 운전 전담, 필요 시 운전자 개입 (Autopilot)

Lv 4: 대부분 상황에서 차량 자율 운전, 운전자 개입 불필요 Lv 5: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 운전, 운전대 불필요

2. 자율주행 필요 센서와 그 역할?

LiDAR

카메라

레이다

초음파 센서: 근거리 객체 탐지(예: 주차 보조)

3. 자율주행 SW 안전성 어떻게 보장?

C. 커넥티비티

- i. 정의: V2V, V2I, V2X가 연결되는 기술
- ii. 핵심 기술: 5G, IoT, 클라우드 컴퓨팅
- iii. 직무 관련 질문:
 - 1. V2X 통신이 무엇인가? 어떤 이점 제공?
 - 2. 5G가 차량 통신에 중요한 이유? 초저지연성,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데이터 처리와 안전성 보장
 - 3. 커넥티드 카에서 데이터 보안 문제 어떻게 해결?

D. <mark>공유 경제</mark>(Shared Mobility)

- i. 정의: 차량 소유 대신 공유 서비스(예: 우버, 그랩)를 이용하는 트렌드
- ii. 핵심 이유: 도심 혼잡 해소, 비용 절감, 환경 보호
- iii. 직무 관련 질문:
 - 1. <mark>공유 모빌리티가 SW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?</mark>
 - 2. 차량 상태 진단 및 유지보수를 위한 SW 솔루션의 역할은?

- 3. 미래 모빌리티의 SW 역할
 - A. SW 중심의 차량(SDV, Software Defined Vehicle)
 - i. 하드웨어보다 <mark>소프트웨어가</mark> 차량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<mark>결정</mark>짓는 차량
 - B. 예시:
 - i. OTA(Over-the-Air):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
 - ii. HMI(Human-Machine Interface):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
 - C. 직무 관련 질문:
 - i. OTA가 미래 모빌리티에 중요한 이유?
 - ii. SW 중심 차량(SDV)의 장점과 한계?
- 4. 미래 모빌리티의 도전 과제
 - A. 보안
 - i. 커넥티드 카의 데이터, 통신보안 어떻게 보장?
 - B. 표준화
 - i. 전 세계 사용 가능한 표준 프로토콜, 통신 방식?
 - C. 소비자 신뢰
 - i.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방법은?

(마저 정리할 것)

8. OTA가 미래 모빌리티에 중요한 이유는?

답변:

OTA(Over-the-Air)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로, 정비소 방문 없이 기능 개선 및 버그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. 이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합니다.

9. SW 중심 차량(SDV)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?

답변:

- 장점: 기능 확장성, 사용자 맞춤화, OTA를 통한 지속적 개선 가능.
- 한계: 사이버 보안 문제, 높은 초기 개발 비용.